거북선 등 조선시대 선박 관련 자료

* 고문서, 고도서 목록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거북선 관련 기록
* 비변사등록에 나타난 거북선 관련 기록
* 거북선의 모양과 구조 설명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판옥선 관련 기록
* 판옥선의 모양과 구조 설명
* 일본의 전선 설명

고문서, 고도서 목록

- **(各船圖本)**
  - 자 : 미상
  - 연 대 : 미상
  - 판 본 : 필사본, 채색도
  - 크 기 : 35.8×25.8cm
  - 내 용
    0 조선시대 후기의 戰船(3個), 漕船, 兵船 등 各船의 모습 그림과 附屬物의 길이, 個數등이 記載됨
  - 소 장 처 奎軸 12163
    0 규장각

- **간재선생문집**
  - 저 자 : 이덕홍
  - 연 대 : 1766년(영조 42)
  - 판 본 : 목판본, 7권, 연보 합 4책
  - 크 기 : 30.4 X 19.9cm
  - 내 용
    0 李德弘의 시문집.
    0 序, 重刊序, 目錄. 卷 1 : 賦(陰陽互根, 剝復), 詩(詠懷, 觀書軒 등). 卷 2 : 詩(月城, 佛國寺 등), 疏. 卷 3 : 問目. 卷 4 : 書. 卷 5 : 溪山記善錄上. 卷 6 : 溪山記善錄下. 卷 7 : 雜著, 銘, 圖. 卷 8 : 年譜
    0 上行在疏-幷圖 : 왜란 중 禮安에서 宣祖에게 올린 상소로 상소의 말미에 구갑선도(거북선도) 등을 첨부
  - 소 장 처
    0 규장각 古 819.52-Y53g-v.1-4, 古 3428-542-v.1-4

- **고려선전기(高麗船戰記)**
  - 저 자 : 도노오카(外岡甚左衛門)
  - 연 대 : 1592.7월
  - 판 본 : 필사본
  - 내 용
    0 왜 함대에 종군한 도노오카가 부산포에서 작성한 전황 문서로, 임진왜란 발발 원인과 한산대첩, 안골포해전에서의 왜 수군의 참상 등을 기록
    0 조선 수군의 모습과 거북선에 대하여 기술

- **귀록집(歸鹿集)**
  - 저 자 : 조현명
  - 연 대 : 18세기 이후
  - 판 본 : 필사본, 20권 20책
  - 크 기 : 34×21.5cm
  - 내 용
    0 歸鹿 趙顯命(1691-1752)이 生前에 整理해 둔 詩文集.

0 1에 거북선에 대한 시를 수록

0 소 장 처

0 규장각 奎 3741-v.1-20

• **(羅大用褒奬加資敎書)**

- 저 자 : 선조
- 연 대 : 1611
- 판 본 : 필사본, 1장
- 크 기 :
- 내 용

0 羅大用褒奬加資敎書 羅大用이 거북선을 만드는 데 힘쓴 공을 기리기 위해 通政大夫行南海顯令의 職을 가하는 敎書.

- 소 장 처

0 全南 羅州郡 文平面 五龍里 羅宗煥 국사편찬위원회 사진 사자 0280

0 독립기념관(사진) 6-002265-042

• **남당선생문집(南塘先生文集)**

- 저 자 : 한원진
- 연 대 : 미 상
- 판 본 : 목판본, 38권 19책
- 크 기 : 29.2×18.7cm
- 내 용

0 한원진의 시문을 모아 만든 문집

0 戰船變通議-代作呈巡撫使-戊子 (58)

· 戰船 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한 글

① 戰船 가운데 거북선이 가장 쓸모가 있으므로, 옛 건조법을 근거로 하되 높이를 조금 높이고 뚜껑을 씌우고 예전대로 병기를 장착하고, 方船의 경우는 몸체를 줄여 속력을 높이고 뚜껑을 씌워 矢石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숫자를 늘려 적을 동요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 전선의 무게를 줄이고 군량을 더 싣을 수 있도록 逢點을 하며, 밧줄은 山麻보다는 屈皮로 하면 비용도 덜 들고 쓰기도 편할 것이다.

③ 군장과 복색의 경우, 각 營鎭의 창고에 보관된 포목을 군사들에게 나눠주어 갖추게 하면 유사시에 군장이 없는 폐단도 없어지고 사기도 진작될 것이다.

- 소 장 처

0 규장각 奎 4211-v.1-19, 奎 5005-v.1-19

• **동고(東考)**

- 저 자 : 미상
- 연 대 : 미상
- 판 본 : 필사본, 1책 95장
- 크 기 : 30.6 × 20cm
- 내 용

0 조선시대 선박에 대한 지식을 모아 기술한 책

- 장 처
  0 장서각 41006807v1

•

- 저 자 : 서영보, 심상규
- 연 대 : 19세기 초(1808년 경)
- 판 본 : 목판본, 11권 11책
- 크 기 : 35.4×22cm
- 내 용
  0 國王의 政務總覽에 참고가 되는 각종의 자료를 수록한 책
  0 軍政編 第 7冊 : 五衛, 扈衛廳, 捕盜廳, 京營陣式, 形名制度, 操點, 烽燧, 驛遞, 巡邏, 備邊司,
  第 8冊 : 兵曹, 訓鍊都監,
  第 9冊 : 禁衛營, 御營廳, 摠戎廳,
  第 10冊 : 關防, 海防, **舟師**,
- 소 장 처
  0 규장각 奎 1151-v.1-11, 奎 2441-v.1-11

•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

- 저 자 : 서명응
- 연 대 : 1935
- 판 본 : 필사본, 60권 30책(1책 결본)
- 크 기 : 33.5×22.5cm
- 내 용
  0 保晩齋 徐命膺이 저술한 類書
  0 申集 立豫 : 武備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한 글로 거북선 등 전함의 종류와 건조방법 등이 기술됨
- 소 장 처
  0 규장각 古 0270-11

• **선안(船案)**

- 저 자 : 미상
- 연 대 : 미상
- 판 본 : 필사본, 1책 25장
- 크 기 : 32.4 X 21.4cm
- 내 용
  0 19세기 초 순조 연간에 전국의 선박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한 책
- 소 장 처
  0 규장각 奎 17039

• **수조홀기(水操笏記)**

- 저 자 : 미상
- 연 대 : 미상

- 본 : 필사본, 5첩
- 내 용
  0 조선 후기에 慶尙道左水營 소속 각 邑鎭의 軍船들을 모아 水軍 操鍊를 시행하는 절차와 규식을 기록한 책
  0 <舟師軍摠>에는 각 邑鎭에서 동원되는 軍船(전선, 거북선 등)과 水軍의 수를 기록
- 소 장 처
  0 규장각 古 9940-2-v.1-5

• (養窩集)
- 저 자 : 이세구
- 연 대 : 미상
- 판 본 : 필사본, 13책
- 크 기 : 33.9×21.8cm
- 내 용
  0 顯宗-肅宗代의 문신 養窩 李世龜(1646-1700)의 시문집
  0 시 중 관전함(觀戰艦)은 이순신(李舜臣)이 만든 거북선을 보고 읊은 것
- 소 장 처
  0 규장각 奎 3416-v.1-13

• **용사일록(龍蛇日錄)**
- 저 자 : 김완
- 연 대 : 미상
- 판 본 : 목판본
- 내 용
  0 김완의 시문집인 해소실기(海蘇實紀)에 수록된 임진왜란 참전 일기
  0 1592년 기록 : 거북선의 구조, 탑재 무기에 대한 설명 수록
- 소 장 처
  0 한국국학진흥원

•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 저 자 : 이순신 저, 윤행임 봉명찬, 유득공 감인
- 연 대 : 1795년(정조 19년)
- 판 본 : 정유자, 권수, 14권 8책
- 크 기 : 35.3×22.4cm
- 내 용
  0 忠武公 李舜臣(1545-1598)의 遺稿全集으로, 1795年(正祖19)에 王命으로 校書館에 局을 설치하고 檢書 柳得恭의 감독 아래 편집, 간행한 것.
  0 卷 12 : 附錄(右議政 鄭琢이 지은 伸救箚 외에 與李統制書, 祭李忠武墓文, 顯忠祠上樑文, 龜船頌 등)
  0 龜船 (圖說7), 全羅左水營龜船 (圖說10)
- 소 장 처
  0 규장각 奎 457-v.1-8, 奎 458-v.1-8, 奎 1106-v.1-8, 奎 1107-v.1-8,
  奎 1156-v.1-8, 奎 1157-v.1-8, 奎 1172-v.1-8, 奎 1199-v.1-8,
  奎 1209-v.1-8, 奎 1210-v.1-8, 奎 1300-v.1-8, 奎 1372-v.1-8,

1373-v.1-8, 奎 1542-v.1-8, 奎 1928-v.1-8, 奎 3917-v.1-8,
古 0270-1-v.1-8

• 나대용 장군 실기 (遞菴羅大用將軍實記)
- 저 자 : 나대용장군 기념사업회
- 연 대 : 1967년
- 판 본 : 영인본
- 크 기 : 26.0 X 19.0cm
- 내 용
0 임진왜란 당시 수군(水軍)이었던 나대용(羅大用; 1556~1612)의 공적을 적은 책이다.
- 소 장 처
0 독립기념관 1-001156-000

• 체암나선생행적(遞庵羅先生行蹟)
- 저 자 : 체함나대용선생기념사업회 편찬
- 연 대 : 1983년
- 판 본 : 영인본, 4권 1책
- 크 기 : 26.3 x 18.9 cm
- 내 용
0 이순신 장군과 함께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 장군의 행적을 기록한 책
- 소 장 처
0 국립중앙도서관 BA2510-85
0 조선대학교 도서관 923.5519-ㅊ272ㅊ

• 해소실기(海蘇實紀)
- 저 자 : 김완
- 연 대 : 미상
- 판 본 : 목판본, 3권 1책
- 크 기 : 29.0 ×19.5 cm
- 내 용
0 김완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가하여 기록한 일기
0 거북선의 구조와 탑재 무기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함
- 소 장 처
0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0 고려대학교 도서관 대학원B12-A158
0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 호좌수영지(湖左水營誌)
- 저 자 : 전라좌수영 편
- 연 대 : 1847년(헌종 13)
- 판 본 : 필사본, 1책 49장, 채색도

- 기 : 39×25.5cm
- 내 용
  0 全羅左水營의 제반 사항을 수록한 營誌
  0 <戰船> : 板屋船, , 兵船 등 각전선별 소속과 크기, 건조시기, 승선 군병 등의 내역을 기록
- 소 장 처
  0 규장각 古 9920-3

거북선 관련 조선왕조실록 기사

- 25권 13년 2월 5일 (갑인) 1번째기사 / 통제원 남교에서 머무르다. 임진도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왜선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

통제원(通濟院) 남교(南郊)에서 머물렀다. 이날 아침에 세자에게 명하여 조정(朝廷)으로 돌아가도록 하니, 세자가 따라가기를 굳이 청하였다. 임금이 여러 대신[諸卿]에게 말하였다. "세자가 감국(監國)하는 것은 예(禮)에 맞는다. 당초는 세자로 하여금 하룻밤만 지내고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세자가 호가(扈駕)할 수 없다고 하여 앙앙(怏怏)대고 밥을 먹지 아니한다. 세자는 나의 자식만이 아니라 나라의 저부(儲副)인데, 그 거동(擧動)이 이와 같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천우(李天祐)·이숙번(李叔蕃) 등이 진언하기를, "이번에는 탕목(湯木)의 행차이니, 마땅히 거가를 따르게 하소서." 하여 임금이 "잠시 동안이다." 하고 그대로 좇으니, 세자가 안색이 기쁜 빛를 띄었다. 임금이 임진도(臨津渡)를 지나다가 거북선[龜船]과 왜선(倭船)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

- 태종 30권 15년 7월 16일 (신해) 2번째기사 / 좌대언 탁신이 병비에 대해 올린 사의 조목

좌대언(左代言) 탁신(卓愼)이 병비(兵備)에 대한 사의(事宜)를 올렸다.

…… (중략) ……

여섯째는, 거북선[龜船]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니 가위 결승(決勝)의 좋은 계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견고하고 교묘하게 만들게 하여 전승(戰勝)의 도구를 갖추게 하소서." 탁신(卓愼)이 이때에 병조를 맡았는데, 임금이 보고 병조에 내리었다.

- 선조 68권 28년 10월 27일 (병인) 2번째기사 / 비변사에서 왜적 방비를 위해 거북선을 더 만들 것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중략) ……

수전(水戰)은 자못 우리 나라의 소장이요, 거북선의 제도는 더욱 승첩에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이 꺼리는 바가 이 거북선에 있고 강사준의 보고도 그러하였습니다. 적병이 처음 부산에 당도할 적에 만일 좌우도(左右道)의 병선(兵船) 수백여 척으로 하여금 제때에 절영도(絶影島) 이남에서 막게 하였더라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듯한데,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세가 뒤를 돌아보는 염려가 전혀 없어서 마음대로 창궐하였던 것입니다. 옛말에 '전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밝은 경계이다.' 하였으니, 지금 이 겨울철을 당하여 급급히 배와 기계를 수리하고 수군의 형세를 많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북선이 부족하면 밤낮으로 더 만들어 대포·불랑기(佛狼機)·화전(火箭) 등을 많이 싣고 바닷길을 막아 끊는 계책을 하는 것이 곧 위급함을 구제하는 가장 좋은 계책입니다. 평상시 경상도에 선재(船材)가 생산되는 곳은 거제(巨濟)·옥포(玉浦)·지세포(知世浦) 등처가 있을 뿐인데, 적병이 몇 년을 넘도록 섬 안에 들어가 있으니 선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도체찰사와 통제사에게 비밀히 통지하여 군기(軍機)를 노출하지 말고 유의하여 조처해서 완급(緩急)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선조 82권, 29년 11월 7일 기해 1번째기사 / 경연을 열다. 유성룡·이덕형 등과 왜적 침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아침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주역(周易)》을 강독(講讀)하였다. 전에 수강(受講)한 것을 다 읽고 나서 시독관

(　　) 한준겸(韓浚謙)이 임괘(臨卦)의 '임(臨)은 서괘(序卦)에 일이 있고 나서 [臨序卦有事而後]'부터 '군자는 경계할 것을 알아야 한다.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귀선(龜船)의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남이공이 아뢰기를, "사면을 판옥(板屋)으로 꾸미고 형상은 거북 등 같으며 쇠못을 옆과 양머리에 꽂았는데, 왜선과 만나면 부딪치는 것은 다 부서지니, 수전에 쓰는 것으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많이 만들지 않는가?" 하니, 조인득(趙仁得)이 아뢰기를, "소신이 황해도에 있을 때에 한 척을 만들어 검(劍)을 꽂고 거북 등과 같이 하였는데, 그 제주가 아주 신묘(神妙)하였습니다." 하고, 남이공이 아뢰기를, "전선은 가볍고 빠른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은 군사가 없는 것이 걱정이지 배가 없는 것은 걱정이 아니니, 바닷가에 사는 공천과 사천을 오로지 수군에 충당하면 국가의 계책에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 선조 85권 30년 2월 7일 (무진) 3번째기사 / 왕이 판옥선이나 거북선을 많이 제작하라고 김홍미에게 전교하다

비망기(備忘記)로 김홍미(金弘微)에게 전교하였다. "이러한 때에 힘껏 싸우는 장수는 비록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깊이 책할 것 없이 부리는 것이 가하다. 주사(舟師)는 지금 한창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그 형세가 대단히 긴박하다. 그러나 부득이 통제사는 고쳐 차임해야 하겠고 경상 우수사도 갈아야겠다. 권준(權俊)은 또 배흥립(裵興立)을 논박하여 분분하게 안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일을 그르치겠다. 수사로 합당한 인물을 속히 의논하여 아뢰라. 지나간 일은 그만이니 지금 국사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조치한다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좌도같은 경우는 주사가 매우 미약하니 상도(上道)의 여러 연해안 고을로 하여금 전선을 제작하고 격군(格軍)을 충당하는 일과, 황해도 역시 솜씨좋은 목수로 하여금 판옥선(板屋船)이나 거북선을 많이 제작하는 등의 일을 신속히 조치할 것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 선조 206권 39년 12월 24일 (무오) 3번째기사 / 전 현령 나대용의 상소 중에 창선을 건조하여 쓸 만한지를 시험하게 하다

겸 삼도 통제사(兼三道統制使)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기를,

…… (중략) ……

거북선[龜船]은 전쟁에 쓰기는 좋지만 사수(射手)와 격군(格軍)의 숫자가 판옥선(板屋船)의 1백 25명보다 적게 수용되지 않고 활을 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각 영(營)에 한 척씩만을 배치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다. 신이 늘 격군을 줄일 방도를 생각하다가 기해년간에 순찰사(巡察使) 한효순(韓孝純)의 군관(軍官)이 되어 별도로 전선(戰船) 25척을 감조(監造)하였을 때, 판옥선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닌 다른 모양의 배를 만들었는데 칼과 창을 빽빽이 꽂았으므로 이름을 창선이라 하였다. 격군 42명을 나누어 태우고 바다에 나아가 노를 젓게 하였더니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고 활쏘기의 편리함도 판옥선보다 나았다.

• 선수 27권, 26년 8월 1일 임오 1번째기사 / 경사로 돌아가려 하는 원외 유황상에게 사신을 보내 문안하다

원외(員外) 유황상(劉黃裳)이 장차 경사(京師)로 돌아가려 하니, 상이 사신을 보내 문안하였다. 유황상이 회첩(回帖)하기를,

…… (중략) ……

크고 작은 귀선(龜船)과 수병(水兵)·화기(火器)를 정돈하여 제도(諸道)에 배치한 뒤 왜적의 침범에 대비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패망할 날이 곧 닥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본부에서 왕을 위해 기뻐하지 않고 왕을 위해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작별하고 가오니 왕은 잘 처리하십시오."하였는데,

• 광해 135권, 10년 12월 17일 임신 1번째 기사 / 우승지 이위경이 주사의 일을 아뢰자 그대로 하라고 전교하다

우승지 이위경(李偉卿)이 아뢰기를,

…… (중략) ……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강가의 희우정(喜雨亭) ·현량(玄梁)·서강(西江)·마포(麻浦)·용산(龍山)·서빙고(西氷庫)·한강(漢江)·두모포(豆毛浦) 등 7, 8촌의 어민과 상인(商人) 중 자원하는 자에게 배 한 척씩을 맡기고, 그 나머지 용주(龍舟) 및 대맹선(大艋船)과, 귀선(龜船) 몇 척도 주사청으로 하여금 풀을 덮어두고 늘 곁에서 살피게 하소서. 그리고 배를 맡은 어민과 상인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본청이 매달 그믐과 초하루에 점검하여, 봄에는 고기를 잡아 팔고, 여름에는 소금을 실어다 팔고, 간혹 하삼도(下三道)의 사곡(私穀)을 조운(漕運)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준 후에 1할의 세를 거두고 8, 9할의 이익을 인정하여 주소서.

• 광해 179권 14년 7월 22일 (병진) 4번째기사 / 비변사가 수군에서 거북선을 만들고 기계 갖추기를 청하자 허락하다

비변사가 하교로 인하여 아뢰기를,"옛날 임진년과 정유년 사이에 이순신(李舜臣)은 기이한 꾀를 내어 왜적을 막으면서 바다를 방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한결같이 순신이 왜적을 방어하던 법식에 따라 거북선을 만들고 기계를 갖출 일을 전라 좌수사와 우수사에게 명백하게 지시하여 〈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아뢴 대로 하라. 빨리 순신의 거북선을 만들며 무기를 수리하고 사졸들을 훈련시켜 착실히 변란에 대비하기를 한결같이 순신이 한 것과 같이 하도록 각별히 말해 보내라."하였다.

• 인조 22권, 8년 4월 29일 무인 5번째기사 / 비국이 유흥치의 일로써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 (중략) ……

그런데 본도(本道)는 전란을 치른 뒤로 남아 있는 배가 많지 않고 또 군량을 운반하고 명을 전달하는 등의 일을 전부 본도에서 징발하여 쓰기가 사세상 어려우니, 할 수 없이 전라 우도의 전선을 징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해 각 고을은 원래 정해진 수군이 없으므로 반드시 전결군(田結軍)으로 격졸(格卒)을 충당해야 할텐데, 소요스럽게 될 폐단이나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모두 염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각 진포(鎭浦)의 전선과 병선의 원수(元數) 19척 내에서 수영(水營)의 상선(上船) 1척, 귀선(龜船) 1척 · 가리포(加里浦)의 1척, 군산(群山)의 소모(召募)병선 1척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병선 15척을 서둘러 징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요스럽게 될 것이니, 격졸 및 각종 군수품과 두 달간의 군량만 싣고서 다음 달 15일 안에 교동(喬桐) 앞 바다에 정박한 뒤 다시 분부를 기다려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선전관을 파견하여 표신(標信)을 가지고 본도 관찰사 및 수사·통제사에게 가서 하유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인조 39권 17년 7월 14일 (기사) 1번째기사 / 청나라와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비국 당상과 논의하다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 (중략) ……

명길이 아뢰기를, “경기 수사(京畿水使)로 하여금 거북선을 제조하여 시험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순신이 창제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숙종 5권 2년 1월 24일 (정미) 1번째기사 / 제주 목사 윤창형에게 중국 선박이 표류하였을 때의 처리 방법 등을 가르치다

주강(晝講)의 명이 내려져서 연신(筵臣)이 입시(入侍)한 뒤에, 임금이 열이 나는 증세가 있어 개강(開講)을 정지하기를 명하였다.

…… (중략) ……

무신(武臣) 이지달(李枝達)이 말하기를, “거북선은 비록 역풍(逆風)을 만날지라도 능히 앞으로 나아가니, 방패선(防牌船)을 거북선으로 만들어서 선봉(先鋒)을 삼는다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하자,

• 숙종 40권, 30년 12월 28일(갑오) 3번째기사 / 이정청에서 오군문의 군제를 고치고 수군을 변통하는 절목을 올리다.

이정청(釐整廳)에서 오군문(五軍門)의 군제(軍制)를 고치고 수군(水軍)을 변통하는 절목(節目)을 올렸다.

…… (중략) ……

“수군의 제도는 《대전(大典)》을 상고하여 보니, 대맹선(大猛船) 1척에 수군 80명, 중맹선에는 60명, 소맹선에는 30명이라 하였는데, 대맹선은 지금의 전선(戰船)이요, 중맹선은 지금의 귀선(龜船)이고, 소맹선의 지금의 방패선(防牌船)이니, 병선(兵船)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선제(船制)가 차츰 커져서 큰 것은 좌우 노로(櫓艫)사이가 혹은 24간에 이르고 노젓는 군사가 1백 20명이 필요하니, 고제(古制)의 80명의 노군(櫓軍)으로는 결코 운용할 수가 없고 귀선과 방패선의 노군 역시 그 수로 기준을 삼기가 어려운데, 토졸(土卒)로서 구차하게 수를 채워 실제로 허술하게 되었으니, 한번 변통하는 것은 사세상 그만두어서는 안됩니다. 또 전선을 설치한 시초에 반드시 원군(元軍)으로 하여금 번갈아 입방(入防)하게 하였으며, 군사를 놓아 보내고 그 대신 면포(綿布)를 거두는 것은 금법(禁法)이 지엄하였는데, 지금은 원군이 전혀 입방(入防)하지 않고 모두 번포(番布)를 거두어 약간 명의 배를 지키는 사람만 고용하여 세우고, 그 나머지 면포는 제반의 수용(需用)에 써버렸으니 그 치병(治兵)하는 방도가 참으로 지극히 한심합니다. 한번 수군의 신포(身布)를 1필로 감액한 뒤로부터 수영(水營)의 각진(各鎭)에서 급대(給代)한 군졸의 원성이 무리지어 일어난다는 뜻으로써 문보(文報)가 답지하는데, 일찍이 급대(給代)한 자는 사환이나 하졸이 아니면 모두 공장(工匠)이나 잡류(雜類)들이니, 참으로 이른바 ‘길러만 놓고 쓰지는 못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변통하고 개정(改正)할 일을 아래에 조열(條列)합니다.

…… (중략) ……

각 선군(船軍)의 제정(制定)한 액수에는 전선(戰船) 1척에 선직(船直) · 무상(舞上) · 타공(舵工) · 요수(繚手) · 정수(碇手) · 사수(射手) · 화포장(火炮匠) · 포수(砲手) · 포도장(捕盜將) · 노군(櫓軍)이 도합 1백 64인이요, 귀선(龜船)은 1백 48인이며, 정탐선(偵探船)은 79인이요, 병선(兵船)이 17인이며, 사후선(司候船)은 5인입니다. 각영과 진의 방군(防軍)에서 군포(軍布)를 마련한 수효에는 통영(統營) 8전선(戰船)의 원방군(元防軍)은 방군을 세우지 않고 사부(射夫)와 첨사부(添射夫)가 모두 7천 6백 36인으로 매인당 면포(綿布) 2필씩을 받는데 풍고(風高)와 풍화(風和)의 각 6개월에 대한 급대(給代)의 수량 및 각선(各船)의 육물가(陸物價)와 우후(虞候)에 속한 급대(給代)와 삭포(朔布)의 수량을 공제하면 여포(餘布)가 6천 5백필 남짓합니다. 좌수영·부산(釜山) 등의 진과 전라(全羅) 좌·우수영 및 방답(防踏) 등 진의 여포도 이에 준하여 다과(多寡)는 다르나 각기 정수(定數)가 있습니다. 각선의 육물가(陸物價)를 또한 마련하였고, 전선 · 병선 · 사후선 · 정탐선 · 귀선(龜船) 1척에 대해 1년에 드는 물건과 초둔(草芚) 진석(眞席) 같은 종류에까지도 모두 차등을 두어 값이 메겨져 있고, 심지어는 사후선(司候船)에 쓰는 표주박 2개의 값까지

면포 3척 6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숙종 58권, 42년 8월 24일(신해) 4번째기사 / 호남과 호서의 전선 12척을 방패선으로 고쳐 만들게 하다

지난해 겨울에 민진후(閔鎭厚)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 (중략) ……

두 가지 말의 득실을 제도(諸道)의 각 곤수(閫帥)와 통수(統帥)에게 널리 물었더니, 제도의 회첩(回牒)이 이제 동시에 이르렀는데 소견이 각각 다르고 또 방패선(防牌船)으로 고쳐 만들기를 청한 자도 있습니다. 총합하여 논하면 제도의 전선이 남아 있는 것은 1백 21척이고 또 귀선(龜船) 5척이 있는데, 전선을 방패선으로 고쳐 만들어야 할 것은 다만 호남(湖南)의 2척과 호서(湖西)의 4척과 경기(京畿) · 해서(海西)의 각 3척뿐이므로 도합하여 12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 제도를 고치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폐단을 줄이는 데에는 오히려 조금 보탬이 없지 않습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영조 40권 11년 1월 20일 (신묘) 1번째기사 / 형조 판서 장붕익이 전선과 거북선 개조에 대한 것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형조 판서 장붕익(張鵬翼)이 아뢰기를,“지난 겨울에 별군직(別軍職) 윤필은(尹弼殷)이 상소하여 전선(戰船)의 제도를 바친 것으로 인하여 신이 왕명을 받들고 이삼(李森)과 더불어 전선과 거북선[龜船]을 개조하였는데, 전선의 2층 위에 장식이 너무 무거워서 바람을 만나면 제어하기가 어렵겠으므로 위층의 방패(防牌)를 별도로 제도를 만들어서 때에 따라 눕혔다 세웠다가 하고, 선두(船頭)에는 곡목(曲木)을 덧붙여서 그 모양이 마치 오리의 목과 같으나 조금 뽀족하여 비록 풍랑을 따라서 나가더라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주 빠르며, 혹시 암석에 부딪히더라도 곡목이 먼저 파손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하니, 그 제도의 모형을 내전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한 뒤에 비국(備局)에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 영조 73권 27년 2월 21일 (기축) 4번째기사 / 호남 균세사 이후가 호남 해도의 상황을, 영남 균세사 박문수가 전선의 일을 아뢰다

호남 균세사 이후(李𡎴)가 호남의 해도도(海島圖)를 올리고 아뢰기를,

…… (중략) ……

영남 균세사 박문수(朴文秀)가 아뢰기를, “신이 전선(戰船)과 귀선(龜船)의 제도를 상세히 보았더니, 전선은 매양 개조(改造)할 때마다 그 몸뚱이가 점차 길어져 결코 운용(運用)하기가 어렵고 귀선에 있어서는 당초 체제(體制)는 몽충(艨衝)과 같이 위에 두꺼운 판자를 덮어 시석(矢石)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기록한 바를 보았더니, 귀선의 좌우에 각각 여섯 개의 총(銃) 쏘는 구멍을 내었는데 지금은 각각 여덟 개의 구멍을 내었으니, 거북선이 종전에 비해 지나치게 커진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으므로 개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새로 제수된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순행하여 살펴서 장문(狀聞)하게 하라.” 하였다.

• 정조 7권, 3년 3월 8일(임진) 1번째기사 / 통어영을 강화부에 합치는 것에 관한 심염조의 건의와 대신들의 논의, 구선복의 별단

통어영(統禦營)을 강화부(江華府)에 합쳤다. 이보다 앞서 무술년에 번고 어사(反庫御史) 심염조(沈念祖)가 별단(別

)을 올리기를

…… (중략) ……

1. 교동에 소속된 전선(戰船)이 2척, 귀선(龜船)이 1척, 병선(兵船)이 4척, 방선(防船)이 1척 인데 각선(各船)에 모두 사후선(伺候船)이 있으므로 도합 16척입니다. 통어영을 이제 심도(沁都)로 귀속시키면 전선과 병선도 사리상 3분의 1은 심도로 옮겨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교동은 심도의 문호(門戶)가 되고 심도는 교동의 당오(堂奧)가 되는데 경외(境外)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당오에서 문호를 지휘하고 문호가 당오를 가리워 막는 것은 이것이 이해(利害)에 관계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리에 있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령 해구(海寇)가 장차 교동을 침범하려 할 경우 교동의 전구(戰具)가 단약(單弱)하여 내양(內洋)으로 들어가게 방치한다면 이에 심도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오에서 방비하는 것이 문호에서 막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선(各船)의 능로군(能櫓軍)과 제색 수군(諸色水軍)이 모두 교동(喬桐) 한 섬에 있으니 지금 갑자기 심도로 이정(移定)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단지 전선 1척, 병선 1척과 사후선 각각 1척 씩만을 이전시키고 그 나머지는 전대로 교동에 유치시켜 놓음으로써 급한 일이 생겨 방어해야 할 즈음에 거의 오로지 그 일에만 힘을 써서 공적을 거둘 수 있는 방도로 삼아야 합니다.

• 정조 33권 15년 11월 21일 (임진) 2번째기사 / 누선을 거북선으로 고칠 것을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 최동악이 치계하다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 최동악(崔東岳)이 치계(馳啓)하기를, “누선(樓船)은 거북선처럼 민첩하지 못한데, 본영에는 누선만 많고 거북선은 적습니다. 누선 6척을 거북선으로 고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누선 10척 가운데 3척을 거북선으로 만들면 적절할 듯합니다.”하니, 따랐다.

• 정조 48권, 22년 1월 21일(병술) 2번째기사 / 통제사 윤득구가 전병선(戰兵船)의 조윤의 변통에 관한 조례를 올리다

통제사 윤득규(尹得逵)가 전병선(戰兵船)의 조운(遭運)의 변통에 관한 조례(條例)를 올렸는데, 그 내용에,

…… (중략) ……

1. 전선과 병선은 각각 부근에 따라 조창(漕倉)에 분속시켰습니다. 본영은 일전선 1척, 병선 2척, 부전선·부병선 각 1척, 중군 전선·중군 병선 각 1척, 좌열 전선·좌열 병선 각 1척, 우열 전선·우열 병선 각 1척, 귀선 · 병선 각 1척, 좌우 정탐선 2척과 진주(晋州)의 전선·병선 각 2척, 고성(固城)·사천(泗川)·곤양(昆陽)·미조항(彌助項)·삼천포(三千浦)·당포(唐浦)·사량(蛇梁)·구소비포(舊所非浦)·적량(赤梁)의 각 전선·병선 각 1척인데 이상의 전선 19척과 병선 18척은 우조창(右漕倉)에 소속시키고, 남해(南海)·하동(河東)·평산포(平山浦)는 각 전선·병선이 각 1척인데 이상의 전선 3척과 병선 3척은 우창(右倉)에 소속시켜 남해의 노량창(露梁倉)에 붙이고, 진해(鎭海)·창원(昌原)·가배량(加背梁)·율포(栗浦)·지세포(知世浦)·옥포(玉浦)·조라포(助羅浦)·장목포(長木浦)·남촌(南村)·귀산(龜山)은 각 전선·병선이 각 1척인데, 이상의 전선 10척과 병선 10척은 좌조창(左漕倉)에 소속시키고, 거제(巨濟)의 전선·병선이 각 2척, 영등(永登)의 전선·병선은 각 1척인데, 이상의 전선 3척과 병선 3척은 좌창(左倉)에 소속시켜 거제의 견내량창(見乃梁倉)에 붙이고, 웅천(熊川)의 전선·병선이 각 1척, 가덕(加德)의 전선·병선이 각 2척, 천성(天城)·안골(安骨)·신문(新門)·청천(晴川)·제포(薺浦)의 각 전선·병선은 각 1척인데, 이상의 전선 8척과 병선 8척은 후조창(後漕倉)에 소속시키고, 김해(金海)의 전선·병선 각 1척은 후창(後倉)에 소속시켜 본부(本府)의 해창(海倉)에 붙였습니다.”하였다.

• 순조 11권 8년 1월 10일 (정미) 2번째기사 / 전 통제사 이당을 소견하고 통영의 폐단에 대해 순문하다

전 통제사 이당(李溏)을 소견하고, 통영(統營)의 폐단에 대해 순문하였다.

…… (　　) ……

임금이 말하기를, “거북선이 있는가, 없는가?” 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그 모양이 거북같이 생겼는데,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 마치 거북이 떠 있는 것 같으며,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므로 지금도 표류(漂流)해 온 왜인(倭人)이 이를 보면 서로 놀라서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기계이다.’라고 한다 합니다.” 하였다.

• 고종 3권, 3년 12월 28일 (계축) 1번째기사 / 의정부에서 배를 수리한 감독관 조종우를 시상하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공충 전 수사(公忠前水使) 임상준(任商準)의 보고를 보니, ‘본 영에서 전선(戰船) · 귀선(龜船) · 방선(防船) · 병선(兵船) 등 배 6척을 모두 개조하였으며, 전선 2척은 배 위에서 가장물을 설치하여 조운선(漕運船) 모양으로 만들어 통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배를 수보(修補)한 것이 여러 길보다 먼저이므로 표창하여 격려해 주는 정사로서는 응당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동(監董) 조종우(趙鍾禹)에게 상을 주고, 이문연(李文淵) 등 8인에게 모두 첩가(帖加)하소서. 그리고 요사이 배를 수리하고 무기를 수리할 때에 혹 허실(虛實)을 서로 속인 일이 보고될 경우에는 도신(道臣)과 수신(帥臣) 이하의 관리들에게 중한 편으로 과오를 추궁한다는 내용으로 모두 신칙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해영(該營)에 공문을 띄워 물어보고 진실 여부를 자세히 안 다음 시상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고종 4권 4년 6월 17일 (기해) 1번째기사 / 의정부에서 청산진의 전선을 새로 만드는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의 장계(狀啓)를 보니, ‘지난번에 청산진(靑山鎭) 진도부(珍島府)의 대오(隊伍)를 변통한 것으로 인하여 가리포(加里浦)의 거북선 1척이 방결전(防結錢) 2,190냥(兩)과 함께 신지도(薪智島)에 옮겨 소속되었으므로, 각종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신도(薪島)의 전선(戰船)을 도로 청산진에 소속시킨다는 것도 변방을 공고하게 하는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전최(殿最)와 송정(松政)이 수영(水營)에 옮겨진 뒤에는 배를 만드는 각종 물건을 전적으로 본진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어 비는 날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각 고을과 진영의 배를 만드는 재목과 청산진의 관청 건물 재목으로 수영에서 낙인찍어 준 것이 도합 4,000여 주(株)나 됩니다. 그 결과 폐단이 거듭하여 생기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송정과 전최를 전례대로 도로 순영에 소속시키고 전선과 거북선도 각 해당 진영에 도로 소속시키며 청산진은 새로 전선을 만들어서 함께 변경을 방비하는 일을 해나가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송정과 전최를 저쪽에 소속시켰다 이쪽에 소속시켰다 하는 것은 진실로 때에 따라 변통하는 정사에서 나온 것이며 편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백성들의 실정에 관계되는 것이니,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도로 순영에 소속시키고 전선과 거북선도 도로 각 해당 진영에 소속시키며 청산진에서 전선을 새로 만드는 것은 순영에서 적당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고종 23권, 23년 4월 20일 (계미) 3번째기사 / 성당진 대오 편성과 선척 배치, 수군과 사부를 획정하고 포를 징수하는 것을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전 우사(全羅前右使) 이용관(李容觀)의 장계(狀啓)를 보니, ‘성당진(聖堂鎭)은 본영에서 관할하니, 전최(殿最)를 마련하는 데에 응당 군산(群山)과 법성(法聖) 같은 독진(獨鎭)의 예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진(該鎭)은 고군산(古群山)이나 군산(群山) 등의 진영과는 매우 가깝고, 본영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해당 첨사(僉使)가 산북중사 중초관(山北中司中哨官)이 되게 하고, 위도 첨사(蝟島僉使)의 부대는 위도

(蝟島僉使)가 후사 파총(後司把摠)이 되게 하며, 임자도 첨사(荏子島僉使)의 부대는 임자도 첨사가 후사 좌초관(後司左哨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주(羅州)의 두 귀선장(龜船將)의 부대는 군오(軍伍)가 정제되어 있고 조련(操鍊)에 나가기에도 모두 편리하니, 전선(戰船) 1척(隻),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을 아무 모양으로 배치하되 전선 1척에는 원래의 방수군(防水軍) 800명과 사부(射夫) 90명을 부근의 각읍(各邑)에 있는 군병 가운데에서 편리에 따라 떼 주어 급할 때 달려가서 모이도록 하소서. 평시에 거두는 포(布)는 신설한 장사들의 봉급을 지급하는 밑천으로 삼게 하는 것이 실로 사의(事宜)에 맞을 것입니다. 모두 내무부(內務府)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해당 진을 지금 이미 창설하였으니, 전최를 마감하고 대오(隊伍)를 정비하고 선척을 배치하고 수군(水軍)과 사부(射夫)를 획정(劃定)하고 포(布)를 거두고 봉급을 지출하는 것을 조처하는 일들은 모두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계(論啓)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려하고 타산한 바가 있을 것이니, 모두 청한 바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비변사등록

- 16년 2월 26일

아뢰기를"충청수사(忠淸水使) 이영달(李英達)이 본사에 첩보(牒報)하기를 '본도의 전선(戰船)과 수사(水使)가 타는 선척은 모두 그 원수(元數)가 14척이며, 귀선(龜船) 1척과 방패선(防牌船) 8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선과 방패선에는 사수(射手)·포수(砲手)·격군(格軍) 등을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서 매년 봄 가을 훈련을 실시할 때에 각관(各官)과 각포(各浦)에서 구차히 인원수만 채워 훈련에 참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전선을 신지(信地 : 주둔지)에 그대로 머물게 하였으니 귀선과 방패선도 신지에서 변란을 대비하게 하여야 합니까? 전선이 있는 각관이 문·음(文蔭)인 경우엔 대장(代將)을 보내고, 무반 수령(武班守令)인 경우엔 본인이 직접 참가해야 합니까?

- 숙종 13년 1월 1일

작년 12월 28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과 우의정 이단하(李端夏)가 뵙기를 청하고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수항이 아뢰기를"병조판서 이사명(李師命)이 일찍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한 배를 나누어 양방패선(兩防牌船) 2척을 만들고 좌우 수영의 전선(戰船) 각 1척과 각 진포(鎭浦) 중의 전선 3~4척을 바꾸어 거북선[龜船]으로 만드는 일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또 공조참판 서문중(徐文重)도 일찍이 경상감사로 있을 때 역시 전선의 제도를 고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리 여부를 모든 도의 수사들에게 물었더니 수사들은 모두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통제사 변국한(邊國翰)의 보고서가 상당히 자세하였는데 대체로 그 보고서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정한 바는 바로 옛 제도였는데, 지난 을묘년에 순검사(巡檢使) 권반(權盼)이 삼남의 수군을 점검할 때에 통제사와 삼도의 모든 장수 및 늙은 병졸들과 상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 배에 실을 군기와 집물(什物) 및 배의 장단과 넓이를 일일이 감정하여 보고한 뒤에 절목(節目)을 반포하였습니다. 그 절목에 통제사와 수사가 타는 큰 배의 본판(本板)은 14파(把 : 1파는 5자 평방)로 결정하였으나 지금은 반 파를 더하였으며, 그 다음 배는 11파였으나 지금은 1~2파를 더하였고, 또 그 다음의 배는 10파씩으로 된 것을 9파 반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2~3파가 더해졌습니다. 각기 파수(把數)가 더해지고 크기도 점점 더 커져 당초의 사목과 비교하면 대소의 제도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 (중략) ……

그러나 한결 같이 전선처럼 하여 점차로 높아지고 커지는 것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 전선을 순검사의 절목대로 파수(把數)를 정하여 훼손되는 대로 개조하게 하였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크기를 조금 감할 것이며 옛 제도를 갑자기 고치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거북선의 제도와 자수가 순경사의 절목 가운데 실려 있지 않아 한결 같이 전선처럼 점차 높아지고 커질 것이라는 말은 과연 그러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의거할만한 것이 없다면 옛 제도도 갑자기 변경하기는 어려우니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숙종 28년 10월 29일

아뢰기를"삼남(三南)의 구선(龜船)을 변통하는 일의 장계에 대한 회계(回啓) 가운데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의 방답(防踏)을 고금도(古今島)라고 잘못 써서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원 점목(粘目) 가운데에 다시 부표(付標)하여 들일 뜻을 감히 아룁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숙종 38년 3월 8일

초7일 주강에 입시하였을 때에 무신 최진한(崔鎭漢)이 아뢰기를"신이 외람되이 소강(所江)에 부임한 지 4년입니다.

…… (중략) ……

또 삼남의 통·수영(統水營)에는 의례 귀선(龜船)이 있습니다. 비단 사면에 방패(防牌)를 높이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널빤지로 집을 만들어서 그 위에 덮었으니 화살과 포(砲)를 막는 데 이 배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임진년의 해전 때에 힘이 된 것은 대체로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실로 주사(舟師)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일이나 해서의 경우 본래 이러한 체제가 없었으니, 식자(識者)들이 깊이 탄식한지 오래입니다. 마땅히 해서로 하여금 속히 1~2척의 귀선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박한 사태에 임하여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거북선의 모양과 구조

- **기록에 나타난 거북선**

- 나타난 거북선 제작 기록

0 거북선에 사용할 범포(帆布: 돛을 만드는데 쓰는 베) 29필을 받았다(2월 8일).

0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하였다(3월 27일).

0 비로소 포범(布帆: 돛)을 만들었다(4월 11일)

0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자포(地字砲)와 현자포(玄字砲)를 쏘아보았다(4월 12일).

- 임진년 이순신의 장계

· 1592년 6월 14일에 작성한 <당포파왜병장 唐浦破倭兵狀>에서 거북선의 구조와 기능을 간략히 설명

"신이 일찍부터 섬 오랑캐가 침노할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귀선을 만들었사옵니다(別制龜船). 앞에는 용머리(龍頭)를 설치하여 입으로 대포를 쏘게 하고(口放大砲), 등에는 쇠송곳을 심었으며(背植鐵尖),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엿볼 수 없게 되어, 비록 적선 수백 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으로 돌입하여 대포를 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싸움에 돌격장으로 하여금 이 귀선을 타고 적선 속으로 먼저 달려 들어가 천자포(天字砲) · 지자포(地字砲) · 현자포(玄字砲) · 황자포(黃字砲) 등의 각종 총통을 쏘게 한즉 산 위와 언덕 아래와 배를 지키는 세 군데의 왜적도 또한 비 오듯이 철환을 함부로 쏘아…"

당포 선창의 해전실황에서는, "… 왜선은 판옥선(板屋船)만큼 큰 배 9척과 아울러 중소선 12척이 선창에 나누어 묵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큰 배 위에는 층루가 우뚝 솟고 높이는 서너 길이나 되며 밖에는 붉은 비단휘장을 쳤고, 사면에 '황자(黃字)'를 크게 썼으며 그 속에는 왜장이 있는데 붉은 일산(日傘)을 세우고 조금도 겁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먼저 거북선으로 곧장 층루선(層樓船) 밑으로 돌격한 후 용의 입으로 현자철환을 윗쪽으로 쏘고(仰放), 또 천자, 지자포와 대장군전을 쏘고나서 들이받아 그 배를 깨뜨리고(撞破其船)…"라고 기록함

- 정랑 이분(李芬)의 행록

0 "공(충무공)이 수영에 있을 때 왜구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을 알고, 본영 및 소속 포구의 무기와 기계들을 수리, 정비하고 또 쇠사슬을 만들어 앞바다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또 전선을 창작하니(創作戰船), 크기는 판옥선만한데(大如板屋), 위에는 판자로 덮고, 판자 위에 십자모양의 좁은 길을 내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칼과 송곳(刀錐)을 꽂아 사방으로 발붙일 곳이 없도록 했으며, 앞에는 용머리를 만들어 입은 총혈(銃穴)이 되게 하고, 뒤는 거북꼬리처럼 되었는데 그 밑에도 총혈이 있으며, 좌우에 각각 여섯 개의 총혈이 있다. 대개 그 모양이 거북의 형상과 같아 이름을 '귀선'이라 하였다. 뒷날 싸울 때에는 거적(編茅)으로 송곳과 칼(錐刀) 위를 덮고 선봉이 되어 나아가는데, 적이 배에 올라와 덤비려 들다가는 칼송곳 끝에 찔려 죽고, 또 적선이 포위하려 하면 좌우 앞뒤에서 일제히 총을 쏘아 적선이 아무리 바다를 덮어 구름같이 모여들어도 이 배는 그 속을 마음대로 드나들어 가는 곳마다 쓰러지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전후 크고 작은 싸움에서 이것으로 항상 승리한 것이었다."

- 당시 일본측의 기록 : 고려선전기(高麗船戰記)

0 7월 10일 안골포해전(安骨浦海戰)의 실전상황을 기술

"구키(九鬼嘉隆)와 가토(加藤嘉明)는 와키자카(脇坂安治 : 한산해전의 패장)가 전공을 세운 것을 듣고, 같이 6일에 부산포로부터 나와 바로 해협 입구에 이르러, 8일에는 안골포의 오도(烏島)라는 항(港)에 들어갔다. 그리하였더니 9일(朝鮮曆 10일)의 진시(辰時 : 오전 8시경)부터 적의 대선 58척과 소선 50척 가량이 공격

왔다.

대선 중의 3척은 맹선(장님배: 盲船, 거북선)이며, 철(鐵)로 요해(要害)하여 석화시(石火矢), 봉화시(棒火矢), 오가리마따(大狩鉢) 등을 쏘면서 유시(酉時,오후 6시경)까지 번갈아 달려들어 쏘아대어 다락에서 복도, 테두리 밑의 방패에 이르기까지 모두 격파되고 말았다. 석화시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5척 6촌(약 117.6cm)의 견목(堅木)이며, … 또 봉화시의 끝은 철로 둥글게 든든히 붙인 것이다. 이와 같은 큰 화살(大箭)로 다섯 칸(1칸은 약 1.25m), 또는 세 칸 이내까지 다가와 쏘아대는 것이다.…"

(鍋島家에 소장된 筆寫原本에서).

- 임진왜란 후의 나대용의 상소

0 1606년(선조 39) 나대용이 창선(柵船: 승무원 42명의 쾌속 무장선)의 효용을 상소

"… 거북선이 비록 싸움에 이로우나 사부(射夫, 사격수)와 격군(格軍, 노를 젓는 수부) 등의 수가 판옥선의 125인보다 적지 아니하고…"

0 거북선의 승무원이 125~130인 정도로 추정

- 명나라 화옥(華鈺)의 기록 : 해방의(海防議)

0 '조선의 거북선은 돛대를 세우고 눕히기를 임의로 하고 역풍이 불건, 퇴조 때이건 마음대로 간다.'

- 명나라에 통지된 을미년의 수군현황 : 사대문궤(事大文軌) 권 12

0 을미년(1595) 명나라에 수군 현황을 통지

"수군통제사 이순신은 … 전선 60척, 귀선 5척, 초탐선(哨探船) 65척을 거느리고…."

* * 당시 기록에 나타난 거북선의 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0 거북선의 크기는 주력전함인 판옥선의 크기와 같다.

0 뱃머리에 용두(龍頭)를 설치하여 용의 입을 통하여 대포를 쏘았다. 또 사각(射角)의 조정이 가능하였다

0 거북의 등처럼 만든 귀배판(龜背板)에는 철첨(쇠송곳)을 꽂아 적병의 등선(登船)을 막았다.

0 포혈(砲穴)은 좌우 각 현(舷)에 6개, 용두에 1개, 선미(船尾)에 1개가 있어 모두 14문이 사용되고 있다.

0 포의 종류로는 천자포·지자포·현자포·황자포 등의 각종 총통을 장비하여, 실전에서는 탄환 이외에도 대전(大箭)을 많이 발사한 것 같다.

0 즉 철갑(鐵甲)을 하여 많은 적선 속으로 뚫고 들어가도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0 <고려선전기>에 의하면 임진년의 거북선은 3척이었다. 《나주목지 羅州牧志》의 "나대용이 임진년 난리를 당하자 이충무공을 좇아 거북선 세척을 꾸몄다."라는 사실과 상통된다. 그러나 을미년(1595)의 거북선은 모두 5척인 것이다.

0 승무원의 수는 당시의 판옥선에 준하여 125~130인 정도이다.

0 돛대는 세우고 눕히기를 임의로 하였다. 전투에 임할 때는, 돛을 보호하고 기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돛대를 눕히고, 노(櫓)만으로 추진한 것 같다.

- **이후의 거북선 기록**

- 인갑기록

0 〈인갑기록 鱗甲記錄〉: 1748년(영조 24)에 작성된 경상좌도수군절도사의 장계 초본에 나오는 내용

· 거북선의 철갑을 뜻하는 내용이 국내 기록으로는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거북선과 누선(樓船)을 비교하여 거북선이 전술적으로 뛰어남을 거듭 지적하고, 또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공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누선을 거북선으로 대치할 것을 극구 주청하고 있음

0 "인갑으로 덮개를 하고〔鱗甲爲蓋〕 그 안을 넓혔으며, 굽은 나무로 가슴을 꾸미고, 가파르고 뾰족하여 가볍고 날래니, 외양은 신령한 거북이 물 위를 달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누선과 비교한다면 그 빠르고 둔함이 하늘과 땅의 판이함으로나 비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인갑이 있어서 시석(矢石)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군사와 기계(무기)를 감추어서 재주를 떨치며 부딪쳐 나아감에 빠르기가 육군의 갑마(甲馬)와 같으니, 그것으로 선봉을 삼아 파도가 도도한 가운데로 달리어 공격하며 나는 듯이 쳐들어 간다면 실로 막강한 이기(利器)이온바, 수군이 믿는 바는 오로지 이 전함인데 ……"

0 "이른바 거북선은 누각을 만들지 않고, 판으로써 덮개를 하고 그 위에 거듭 인갑을 하였고〔所謂龜船則不以爲樓以板爲蓋仍作鱗甲〕, ……노젓는 군사가 노를 젓는 데 편하여 나가고 물러가는 것을 뜻대로 할 수 있어 바람을 맞아 물을 가름에 빠르기가 날랜 말과 같사온바……"

0 "오호라! 저 전란(임진왜란)의 때에 충무공께서 왜구를 맞아 순식간에 충성으로 분발하여 상담의 고통으로 진력하매, 거북선을 처음 만들어 용감하게 승리하였으니, 후세의 변란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충무공은)처음부터 끝까지가 참으로 병법을 아는 뛰어난 장수였는데, 혹시 사변이 일어나면 걱정 없이 나아가 진(陣)에 임하여 흉포한 적을 다스림에 있어, 빠르게 나아가 부딪쳐 쳐들어 감에 충무공이 만든 거북선의 전략에 부합되어야 할 것인즉, 진에 임하여 적을 무찌르는 용기가 비록 충무공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지혜로움과는 같지 못하다 하더라도, 외방의 진을 굳게 지키는 도리에 있어서는 결코 빠름을 버리고 둔함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 1686년(숙종 12) 12월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등 중신들의 토의

0 권분의 〈감정절목〉을 가리켜, "당초 절목을 꾸밀 때, 난이 지난 지 오래지 않아 이순신의 휘하 장교나 늙은 병사가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 있어……모든 장수와 함께 묘당에 모아 감정한 것으로, 그 정한 바 치수는 필경 이순신 때의 옛 제도에서 나온 것이고……" 하니 왕도 그 절목을 준수하라는 뜻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 1751년(영조 27) 영남균세사(嶺南均稅使) 박문수(朴文秀)

0 "신이 전선과 귀선의 제도를 소상히 살펴보매 전선은 개조시에 선체가 점차 길어져 반드시 운영이 어렵사옵니다. 귀선에 미쳐서는 당초의 체제 몽충과 같사옵고, 위에 두꺼운 판자를 덮어 시석을 피하오니 신이 이순신의 소기를 살펴보매 귀선의 좌우 각 6총혈이 열리매 지금은 8혈을 열었사오니, 귀선은 전에 비하여 과대하나이다. 또 아뢰올지니, 개조 아니치 못할 바를……"(英祖實錄 27年 2月 己丑)이라고 하여 전선과 귀선의 퇴화상을 지적

- 이충무공 전서의 거북선

0 '안설(按說)'

"이물비우는 가로 널판으로 4장을 이어 붙였는데 높이는 4자(1.2m)이고, 둘째 판 좌우에 현자 대포구멍을 각각1개씩 뚫었다. 고물비우는 가로 널판으로 7장을 이어 붙였는데 높이는 7자 5치(2.3m)이고, 위쪽 너비는 14자 5치(4.5m), 아래쪽 너비는 10자 6치(3.3)m이다. 여섯째 판 한가운데에 직경 1자 2치(0.37m)가 되는 구멍을 뚫어 치(?)의 킷 다리를 꽂았다. 좌우 뱃전 밖으로 빠져 나온 멍에 뺄목 위

신방(도리)을 걸고 신방 머리 쪽에 멍에(덕판멍에)를 가로로 걸었는데, 바로 이물(뱃머리) 앞에 닿게 되어 마치 소나 말의 가슴에 멍에를 메인 것 같다.
신방을 따라 가면서 안쪽으로 널판대기(포판)를 깔고 신방우에 기둥을 언방(건축의 창방)을 걸었는데, 신방에서 언방(패란)까지의 높이는 4자 3치(1.3m)이다. 언방(패란)의 좌우에서 안쪽으로 각각 11장의 널판(덮개판)으로 고기의 비늘처럼 겹쳐서 올려덮었다. 그 잔등 한 가운데에는 1자 5치(0.47m)의 틈(등골)을 내어 돛대를 세웠다 뉘었다 하기 편하게 하였다. 뱃머리에 거북대가리(용대가리)를 달았는데, 길이는 4자 5치(1.3m), 너비는 3치(0.94m)가 된다. 안에서 유황과 염초를 불살라 입을 벌려서 마치 안개처럼 연기를 토함으로써 적을 혼미하게 하였다. 좌우에 노가 각각 10척씩 있고, 좌우 방패에 각각 22개의 포혈을 뚫었고 12개의 문을 내었다. 뱃머리의 거북 대가리 위쪽에 2개의 대포구멍을 뚫어G고, 아래에 2개의 문을 내었다. 문 곁에 각각 1개씩의 대포 구멍이 있다.
거북 잔등판좌우에 각각 12개의 대포 구멍을 뚫었으며, 거북 '귀(龜)'자의 깃대를 꽂았다. 배의 좌우 포판(마루)아래에 방이 각각 12칸이 있는데, 2칸은 철물을 쟁여 두고, 3칸은 대포 활 화살, 창, 검 등을 나누어 재어 놓았으며, 19칸은 병사들이 휴식하는 곳이다. 배 위 고물의 왼쪽 포판위에 있는 방 1칸은 선장실이고, 오른쪽 포판 위에 있는 방 1칸은 장교실이다. 군병들이 쉴때는 포판아래 선창의 선실에서 쉬고, 싸울 때는 포판위로 올라와 모든 대포 구멍에 대포를 걸어 놓고 끊임없이 쟁이고 놓아댄다"

판옥선 관련 조선왕조실록 기사

- 명종 32권, 21년 3월 13일 갑진 /대신과 비변사가 진·포의 판옥선과 경강의 판옥선에 대해 아뢰다

대신과 비변사가 함께 의논드리기를,"각처 진·포(鎭浦)의 판옥선(板屋船)은, 처음 설치할 때 그 수효가 많았는데 그 뒤에 점차 줄여 지금은 맹선(艋船)을 약제(略除)하고 판옥선으로 《대전(大典)》에 기재된 맹선의 수효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적왜(賊倭)가 다 평선(平船)을 타고 왔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평선을 사용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왜가 다 판옥선을 이용하고 있으니 부득이 판옥선을 사용해야 서로 맞설 수 있으므로 더할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전》에 기재되지 않은 각처의 판옥선은 민력이 많이 소요되고 폐단 또한 적지 않아서 그 중에 신·구의 것을 분별하고 다시 수효를 줄였는데, 지금 줄인 각처 선척의 수효를 서계하겠습니다.또한 경강(京江)의 판옥선을 여러 차례 줄여서 지금 15척이 되는데, 수리하고 개조하는 즈음에 그 폐단이 몹시 많으므로 의논하는 이들 중에, 개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 말도 자못 이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조(前朝)의 일을 미루어 본다면, 적변을 예기할 수 없고 또 예비 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상, 경솔히 철수시킬 수 없습니다. 경연관이 아뢴 대로 현존한 15척만 보존해 두고 나머지는 더 설비하지 마소서."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선조 5권, 4년 11월 29일 정해 2번째기사 / 유희춘이 주강에서 전라도 수군들의 조운(漕運) 폐단을 아뢰다

유희춘이 주강의 특진관(特進官)으로서 아뢰기를,

…… (중략) ……

유희춘이 다시 아뢰기를,"수군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대전(大典)》에는 '각포(各浦)에 대명선(大猛船)·중맹선(中猛船)·소맹선(小猛船) 약간씩을 둔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은 을묘 왜변 이후로 적을 방어하는 데 쓰는 판옥선

(　　)·방배선(防排船)·협선(夾船) 등이 매우 긴요한데도 군대도 없이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배는 여전히 수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든 지 3~4년 되면 썩어 못 쓰게 되므로 이로움은 없고 폐단만 있는데, 이 일은 대신들이 조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각포의 수군이 수영(水營)에 바치는 방물(方物)로서 홍소록비(紅小鹿皮)와 결궁장피(結弓獐皮) 등은 큰 병폐입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제주에는 강돈(江豚)이 사슴으로 변하여 그 생산이 끝이 없고 그 지방에는 호표(虎豹)나 시랑(豺狼)이 없어 사슴과 노루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또 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어서 소금을 굽기가 어려워 토착민들이 소금을 귀하게 여기니 지금에 각포에서 겨울에 입번하는 수군 1~2명을 뽑아 소금 1석이나 10두를 받아들여 관(官)에서 제주로 보내어 장록비(獐鹿皮)와 바꾸게 하면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 선조 61권, 28년 3월 18일 신묘 4번째기사 / 영의정 유성룡이 시무 대책을 건의하다

영의정 유성룡이 비변사 낭청을 시켜 아뢰기를,

…… (중략) ……

수군[舟師]의 형편도 매우 염려됩니다. 전일 적선(賊船)이 화호(和好)를 핑계로 몰래 와서 엿보고 갔다는데, 왜적이 하루라도 복수할 생각을 잊지 못하는 것은 실로 이순신(李舜臣)의 장계 내용과 같습니다. 왜적이 수륙(水陸)으로 한꺼번에 나올 경우 수군이 막지 못한다면 일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대체로 왜적이 해전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배가 멀리서 왔고 선제(船制)가 견고하고 장대(壯大)하지 못하여 그 위에 대포를 안치할 수 없어서 우리 나라 배에 제압된 것입니다. 지금 왜적이 오랫동안 제목이 많은 거제(巨濟)에 있으니, 만일 우리 나라의 선제를 따라 판옥선(板屋船)을 많이 만들어 포를 싣고 나온다면 대적하기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급한 때에 수군이 전날보다 더 약하고, 순찰사 등은 또한 장래의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제장은 전부 차사원(差使員)이 되었고, 군량도 많이 감소되었는데다, 불행히도 충청도의 배가 바다에 침몰하여 제때에 가기가 어려우니,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순신이 청한 제장을 금명간에 급속히 떠나보내고 또한 이러한 뜻을 이순신 등에게 밀유(密諭)하여 각오를 새롭게 하여 조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 선조 85권, 30년 2월 7일 무진 3번째기사 / 왕이 판옥선이나 거북선을 많이 제작하라고 김홍미에게 전교하다

비망기(備忘記)로 김홍미(金弘微)에게 전교하였다.“이러한 때에 힘껏 싸우는 장수는 비록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깊이 책할 것 없이 부리는 것이 가하다. 주사(舟師)는 지금 한창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그 형세가 대단히 긴박하다. 그러나 부득이 통제사는 고쳐 차임해야 하겠고 경상 우수사도 갈아야겠다. 권준(權俊)은 또 배흥립(裵興立)을 논박하여 분분하게 안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일을 그르치겠다. 수사로 합당한 인물을 속히 의논하여 아뢰라. 지나간 일은 그만이니 지금 국사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조치한다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좌도같은 경우는 주사가 매우 미약하니 상도(上道)의 여러 연해안 고을로 하여금 전선을 제작하고 격군(格軍)을 충당하는 일과, 황해도 역시 솜씨좋은 목수로 하여금 판옥선(板屋船)이나 거북선을 많이 제작하는 등의 일을 신속히 조치할 것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 선조 86권, 30년 3월 18일 무신 2번째기사 / 경상 감사 이용순의 서장

경상 감사 이용순(李用淳)의 서장에,“금년 3월 10일 성첩(成帖)하여 당일 도착한 고성(固城)에 유진(留陣)하고 있는

치보(馳報)에 '본현(本縣)의 판옥선(板屋船)에 사수(射手)·격군(格軍) 등 하솔(下率) 1백 40여 명을 싣고 현령이 직접 거느리고서 바다로 나아가 3월 9일 조라포(助羅浦) 경계 고다포(古多浦)에서 왜적과 접전할 때 전선(全船)이 패전하고 현령도 전사하였으므로 시체를 싣고 당일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패전한 절차는 자세히 조사하여 아뢸 계획입니다마는, 근간(勤幹)하고 용감한 사람을 각별히 이 고을 현령으로 택차(擇差)하여 수삼일 안으로 서둘러 내려보내소서."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선조 89권, 30년 6월 26일 을유 5번째기사 / 장 참의에게 수영의 현황을 보고하고 조선의 전선에도 자호를 붙이다

비변사가 아뢰기를,"근래에 양 경리(楊經理)와 장 참의(張參議)의 자문을 잇따라 보니, 그들이 우리 나라의 군사 수와 선박 수, 군량의 숫자, 기계의 숫자를 매우 자세히 물었는데 우리 나라는 하나도 명백히 조사하여 보고하지 않고 몽롱하게 응답했습니다. 이제 또 장 참의가 수영(水營)을 조사하는 자문 안에 또 우리 나라의 배가 몇 척이며, 선박마다 수병(水兵)은 얼마이며, 배에는 어떤 기계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하나 지적하여 이처럼 자세히 물어왔으니, 다시 모호하게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니 한산도(閑山島)와 3도(島)의 선박만이라도 판옥선(板屋船)의 경우 그 수량과 1척에 승선하는 격군(格軍)의 수와 사수(射手)의 수 및 포수(砲手)의 수, 사용하는 기계와 각종 총통(銃筒)의 각 선박별 수, 궁시(弓矢)와 잡기계(雜器械)의 수를 조사 보고하고, 대맹선(大猛船)의 수효와 소맹선(小猛船)의 수효 및 승선한 군사의 수와 기계 역시 이와 같은 식으로 조사 보고하게 함으로써 낙착되게 한 연후에야 응수함에 군색함이 없을 것이고, 군기(軍機)를 그르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변(南邊)의 보고는 전부터 모두 분명하지 못하여 누차 회자(回咨)한 것과 면대하여 답한 말이 서로 모순이 되니 반드시 사단을 일으키고 말 것으로, 매우 염려됩니다. 통제사(統制使) 및 체찰 부사(體察副使) 한효순(韓孝純) 등에게 하유하여, 현재 있는 전선(戰船)과 소선(小船)의 수를 빠짐없이 초출(抄出)하고 아울러 싣고 있는 군사의 수와 기계의 숫자를 일일이 자세히 기록하여 주야를 가리지 말고 치계하도록 하소서.그리고 중국의 전선(戰船)에는 모두 자호(字號)가 있으니 예를 들면 '천(天)' 자의 제일선(第一船)·제이선·제삼선 하는 식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매사에 법이 없기 때문에 배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경상(慶尙)·전라(全羅)·충청 등 도의 전선에 모두 자호를 나누어 정해 낙인(烙印)을 찍음으로써 조사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 선조 126권, 33년 6월 15일 병술 2번째기사 / 사도 도체찰사로 남방을 순찰한 이항복과 농황·요역·관방·수령·적정·전세 등에 대해 논의하다

사도 도체찰사 겸 도원수 의정부 좌의정(四道都體察使兼都元帥議政府左議政) 이항복(李恒福)이 남방에서 올라왔다. 상이 별전(別殿)에서 인견(引見)했는데 동부승지 민중남(閔中男), 가주서(假注書) 변응벽(邊應壁), 기사관(記事官) 2인이 입시하였다.

…… (중략) ……

이항복이 아뢰기를,"정유년에 울도(蔚島)와 명량도(明梁島)에 왜선(倭船)이 바다를 뒤덮어 올 때 안위(安衛)가 하나의 판옥선(板屋船)을 띄워 해전(海戰)에 임했지만 적들이 이 배를 깨뜨리지 못했는데, 아마도 적선이 작았기 때문에 쉽게 대적할 수 있었던 탓인가 합니다."하였다.

- 선조 206권, 39년 12월 24일 무오 3번째기사 / 전 현령 나대용의 상소 가운데 창선을 건조하여 쓸 만한지를

하다

겸 삼도 통제사(兼三道統制使)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기를,“나주(羅州)에 사는 전 현령(縣令) 나대용(羅大用)의 상소 내용에 ‘신은 나주에서 성장하였다. 계미년에 등과(登科)하여 6년 동안은 북쪽을 방어하였고 7년 동안은 남쪽을 방수(防戍)하였으며, 신묘년연간에는 수사(水使) 이순신(李舜臣)의 감조 전선 출납 군병 군관(監造戰船出納軍兵軍官)이 되었다. 임진 왜변의 초기에 옥포(玉浦)에 머물고 있던 왜적이 진격해 와 싸움을 벌일 때 신은 발포 가장(鉢浦假將)으로서 앞장서 돌격해 들어가 적선 2척을 포획하였고, 사천(泗川)·선창(船滄)·당항포(唐項浦) 등지의 15여 회에 달하는 전투에서는 모두 수공(首功)을 세웠으므로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마침내 강진 현감(康津縣監)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로 연이어 금구(金溝)·능성(綾城)·고성(固城)의 현령에 제수되었다. 나 자신은 군대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군병(軍兵)의 기밀에 대해서도 조금 짐작할 수 있게끔 되었다. 신축년11월에 어미 상(喪)을 당하여 돌아갔다가 연이어 아비 상을 만나 6년 동안 거상(居喪)하다 보니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복(服)을 마쳤기에 한 가지 계책이 있어 구중궁궐에 찾아와 호소한다. 대체로 왜적을 막는 데에는 주사(舟師)보다 앞설 것이 없다. 임진·계사 년간의 전선(戰船) 숫자는 거의 2백여 척에 달하였으나 오히려 부족하였다. 그런데 정유재란 뒤에는 간신히 마련한 전선의 숫자가 삼도(三道)를 통틀어 60여 척이었으니 각처에 배분하는 데 있어 극히 소홀하여 뜻밖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뉘라서 숫자를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마는 군사가 부족하여 만들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그 군사의 숫자로써 배를 늘리는 계책을 말해보겠다. 거북선[龜船]은 전쟁에 쓰기는 좋지만 사수(射手)와 격군(格軍)의 숫자가 판옥선(板屋船)의 1백 25명보다 적게 수용되지 않고 활을 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각 영(營)에 한 척씩만을 배치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다. 신이 늘 격군을 줄일 방도를 생각하다가 기해년간에 순찰사(巡察使) 한효순(韓孝純)의 군관(軍官)이 되어 별도로 전선(戰船) 25척을 감조(監造)하였을 때, 판옥선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닌 다른 모양의 배를 만들었는데 칼과 창을 빽빽이 꽂았으므로 이름을 창선이라 하였다. 격군 42명을 나누어 태우고 바다에 나아가 노를 젓게 하였더니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고 활쏘기의 편리함도 판옥선보다 나았다. 그뒤로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한 번도 전쟁에 쓰지 않은 채 여러 해를 버려두어 썩어가고 있다. 이후로는 신분이 미천하다 보니 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람들이 실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이어 만들지 않았고 그 제도마저도 그대로 버려둔 상태이다. 만일 다시 이 배를 만들도록 하여 대소(大小)의 여러 장수에게 각기 1척씩 맡긴다면 배 숫자는 전보다 배나 되지만 사수와 격군은 더 늘지 않아도 저절로 충분할 것이다. 또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는 배의 사수·격군의 전 숫자를 창선에 옮겨 싣고, 각 고을의 배는 그 고을 수령의 수하군(水下軍) 및 하번(下番) 군사가 강 어귀에 정돈하여 변란에 대비하다가 변란 소식이 들리면 즉시 전쟁터로 달려가게 하고 그 가운데 직질(職秩)이 높은 수령에게 조방장(助防將)이란 호칭을 띠고 미리 단속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이 상소에 대한 비변사의 계목에 의거하건대 ‘계하(啓下)를 점련한다. 주사의 숫자는 과연 상소에 말한 바와 같이 전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정유년에 패몰당한 뒤로 빈 배가 있어도 사수와 격군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선의 제도는 상소에서 아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수전(水戰)에 유용하고 적을 제압하는데 편리한 것으로 사실 예사로운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이전에 시험해 보지 않았으니 쓸 만한가의 여부(與否)에 대해서 통제사(統制使)에게 물어 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 창선이 쓸 만한가의 여부를 속히 계문(啓聞)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신이 임진년부터 이후로 수전(水戰)에 종사하여 전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정묘하게 강구해 보지 않은 것이 없으나 창선의 제도는 일찍이 시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격군 42명을 채워 싣고 바다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선체가 협소하여 좌우에 방판(防板)을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방판을 제거시켜 버리면 시석(矢石)을 막을 수 없어 전투에 임해 손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임진·정유·무술년의 싸움에서는 모두 판옥선(板屋船)처럼 큰 배에 힘입어 이길 수 있었으니 이것은 이미 보아온 증거입니다. 신은 감히 그렇게 이용하기가 묘한 점을 생각해내어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나대용을 조선 차관(造船差官)으로 호칭하여 한두 척을 감독하여 만들게 하여 편리한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갖추어 계문합니다.”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비변사의 계목에,“계하(啓下)를 점련합니다. 창선에 대한 제도는 통제사가 일찍이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이라 하니, 장계에 언급된 대로 나대용을 속히 내려보내 감독해 만들게 하여서 쓸 만한지의 여부를 시험해보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판옥선의 모양과 구조

- 시기 : 중종 말 - 명종 초로 추정
- 특 징
  - 0 조선 저기의 대형 군함인 대맹선보다 더 크게 제작
  - 0 2층 갑판으로 구성되어 격군과 전투병이 구분되어 전선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2층 갑판에서 전투병이 적선을 내려 보며 전투를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음

- 구 조
  - 0 2층 갑판으로 구성
    - · 1층 갑판 : 노를 젓는 병사(격군, 노군)이 승선
    - · 2층 갑판 : 전토요원(사부, 포수, 화포장 등)
    - · 1층 갑판 아래에 거북선과 같이 선실을 두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음
  - 0 구조적 측면
    - · 현호(선체의 휘어짐 정도)가 현대의 선박 또는 당시 우리나라의 배와 비교하여 상당이 작음
    - · 일반적으로 현호를 주는 것이 배의 성능이 높아지나, 선수에 화포를 쉽게 설치하기 위해 선수 현호를 작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

- 판옥선의 크기와 승선 인원
  - 0 선체 길이

· ① 배밑판 길이 : 70자(약 21.5m)

· ② 선체 길이 : 80-90자 (약 24.5 - 27.6m)

· ③ 전체 길이 : 90-110자 (약 28 - 34m)로 추정

0 선체 폭

· ④ 선체 폭 : 36자 (약 11m)

· ⑤ 배 밑판 너비 : 15자 (약 4.6m)

· ⑥ 선체 넓이 : 26-30자 (약 8-9.2m)

· ⑦ 선체 높이 : 8자 (약 2.5m)

· ⑧ 1층 갑판 높이 : 5자 (약 1.6m)

0 승선 인원

	( )	선직	무상	타공	요수	정수	좌우 포도장	사부	화포장	포수	노군	계
통영상선	1	2	2	2	2	2	2	22	14	26	120	194
(수사) 전선	1	2	2	2	2	2	2	20	12	24	110	178
전선	1	2	2	2	2	2	2	18	10	24	100	164
통영거북선	1	2	2	2	2	2	2	14	8	24	100	158
거북선	1	2	2	2	2	2	2	14	8	24	90	148

- 판옥선 복원 모형도(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일본의 전함

- 아다케 후네(안택선, 安宅船)

0 일본의 전함 중에서 가장 큰 배로서, 지휘관급의 기함으로 사용됨

0 종 류

· 이세형(伊勢船型) : 배의 이물이 우리나라 전통 배와 같이 평평함

· 후다나리형(二成船型) : 배의 이물이 뾰족한 구조로 되었으며, 세토나이카이나 큐슈 지역에서 발전됨

0 크 기

· 배 밑판 길이 : 소형 - 43자, 대형 - 93자

· 이충무공 전서의 거북선과 광해군 때의 판옥선보다 조금 크며, 조선 후기 통제영의 기함인 판옥선과 비슷함

0 승선 인원

· 격군 약 80여명, 전투병 약 60여명으로 개략 140-150여명으로 판옥선과 비슷함

0 비교

· 갑판 구조 : 1층에는 격군 등이 승선하며, 2층에는 전투병이 승선하는 판옥선과 동일함

· 노 : 이세형 안택선은 판옥선과 같이 2명이 사용하는 대노형

· 돗대 : 판옥선과 같이 돗대를 2개를 다는 쌍범의 경우도 있음

- 세키부네(관선, 關船)

0 일본의 주력 전투함으로 전형적인 일본 배의 양식을 갖고 있음

0 구 조

· 뾰족한 선수를 갖고 있으며, 길고 폭이 좁은 날렵한 선체 구조

· 상층 갑판 구조 : 1층 갑판위에 높이가 다른 몇 개의 상층 갑판을 복합적으로 설치

0 크 기

· 길이 : 36-46자 (약 11-14.1m)

· 폭 : 12-16자(약 3.7-4.9m)

0 승선인원

· 노군 40명, 전투인원 약 30명 승선

0 특 징 : 경우에 따라 대포 1문을 장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대포를 탑재하지 않음

- 고바야(소조, 小早)

0 작은 세키부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세키부네 보다 크기가 작다

0 구 조

· 뾰족한 선수를 갖고 있으며, 좁고 날렵한 형태

· 1층 갑판 구조이며, 선수에 장대 형태의 간단한 망루가 있음

0 크 기

· 길이 : 36자 미만(약 11m 미만)

0 승선인원

· 임진왜란 당시 노가 30개 이하로, 30-40명 정도 승선